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어 한우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소식지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5년 8월호

핫이슈①
FTA보다 더 무서운 김영란법, '교각살우'될라

핫이슈②
무허가축사 양성화,
건폐율 확대와 이행강제금 경감 시급

한우자조금소식
'비타민 조절을 통한 한우 근내지방도 향상'에 관한 연구

목장탐방
전북 부안 천연원농장

우리한우판매점 탐방_전라북도편
무주 반햇소 한우판매점

광복 7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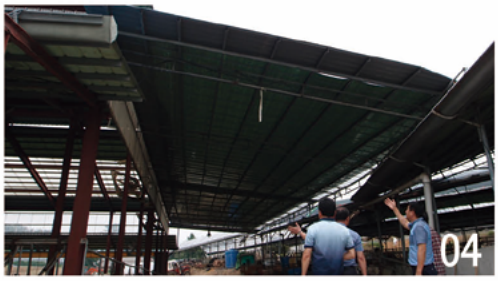
우리 한우가 함께합니다!



목 차CONTENTS

2015년 8월호









핫이슈①

03 FTA보다 더 무서운 김영란법, '교각살우' 될라

핫이슈②

04 무허가축사 양성화, 건폐율 확대와 이행강제금 경감 시급

한우자조금 소식

07 방송PPL – 삼복더위를 이기는 여름 보양식, 우리한우 최고!
08 '비타민 조절을 통한 한우 근내지방도 향상'에 관한 연구

한우협회소식

10 한우 원산지위반 손해배상 청구 위임서 보내주세요!

정보마당

12 **희망인터뷰**_한우홍보대사 탤런트 김상중
14 **농장탐방**_전북 부안 천연원농장
16 **한우시황**_8월 한우 관측
18 **우리한우판매점 탐방(전라북도편)**_무주 반햇소 한우판매점
20 **뉴스클리핑**_이달의 이슈
22 **한우바르게알기**_농민의 혼 한우, 일제 수탈의 역사

독자마당

23 **애독자퀴즈**_퀴즈 및 독자투고

FTA보다 더 무서운 김영란법, '교각살우' 될라

한우협회, 8월 10일 농축산물 제외 요구 국회토론회 개최

矯角殺牛(교각살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고사성어처럼 일부 공직자 등의 금품 향응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애먼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월 14~15일 이사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우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농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우고기 등 국내산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정한 법이다.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선물이나 밥값, 경조사비 등은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1인당 식사와 선물은 3만 원~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의 식사비나 선물비용이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설과 추석 양대 명절 수요가 전체 소비의 30~40%에 달하는 만큼, 명절 선물로 활용되지 못하면 FTA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돼 예외대상 선물금액의 상한이 5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면 한우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선물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3년 평균 설과 추석 명절 특수로 한우가 8,308억 원(한우농가 총수입 및 유통마진)의 매출을 올린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50% 영향을 가정하면 4,155억 원, 30% 영향을 받으면 2,493억 원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 이에 한우협회는 8월 10일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우고기 등 국내산 농축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올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7일까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접수되는 의견을 고려해 8월말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건폐율 확대와 이행강제금 경감 시급

시군지부의 지자체 적극 대응 요망



환경부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설건축물' 적용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같은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한 최근 정책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처마 확장, 축사통로연결 등은 인정 콘크리트 퇴비사는 불인정

2012년 말 기준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축사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만5,848개소 가운데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은 약 50%이며, 이 가운데 일부를 불법으로 증 · 개축한 축사는 28.6%이고, 시설 전체가 무허가 미신고인 축사는 2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3년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개 관련부처가 함께 한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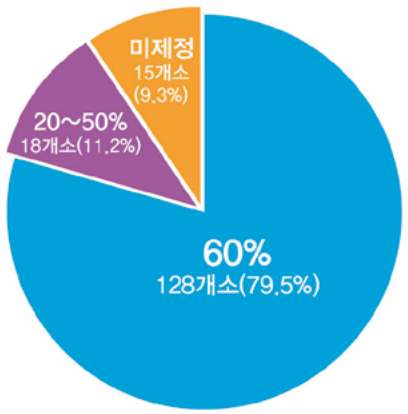
부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을 마련했으며, 작년 11월 여 · 야 · 정 협의체 합의를 통해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과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을 만들어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세부 시행방안은 올해 5월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거나 ▲축사 처마를 확장한 경우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 '가설건축물' 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해 난항을 겪게 됐다.

한우협회는 국토부의 입장이 반영된다면 한우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즉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이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거나 축사 처마를 확장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겠다' 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퇴비사 옹벽은 움직일 수 없이 땅에 부착돼 있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이동통로로 이용하거나 축사 처마를 연장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를 가설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같이 대응했다" 고 말했다.

시군 · 도지회의 건폐율 및 이행강제금 개선 노력 필요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담길 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폐율의 경우 아직 20~50%로 하향 설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6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다. 현재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만 허용했지만 합성수지(선라이트, 벽과 지붕) 재질과 50% 이하의 합성강판(갈바륨, 지붕)도 포함시켰고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세 번째, 올 3월부터 3년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축사거리 제한' 을 유예시켰다. 이밖에도 젖소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운동장을 한 · 육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가축방역시설을 건폐율에서 제외시켰다.

이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서 남은 주요 과제는 시도별 조례로 제·개정되는 건폐율 확대와 이행강제금 경감이다.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 좁은 축사부지 때문에 무허가시설에 포함되던 축사를 상당수 합법화시킬 수 있는데, 현재 건폐율 60%인 지자체는 128곳이고, 20~50%는 18곳이며 제정하지 않은 지역은 15곳이다.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현황

이행강제금의 경우 현재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행강제금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며, 이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이보다 낮은 5%(경기 양평), 10%(경북 포천, 충북 영동, 경북 고령), 20%(경기 여주 및 연천, 충남 공주, 전북 완주 및 고창, 전남 무안) 정도로 부과한 사례가 있어 타 지역도 이행강제금을 낮게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식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설계 및 측량, 건축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지원 대책을 고심 중이다.

실제 전북 완주군 비봉면의 한 농가 사례에 따르면 2005년 사용승인을 받은 경량철골의 축사 2동(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352㎡)을 신고제로 건축한 뒤 통로로 연결했는데 건폐율 60%, 이행강제금 50%를 적용했을 때 양성화 비용은 총 662만 원이 소요됐다〈표 참조〉.

〈축사 2동을 신고제로 건축한 뒤 통로로 연결한 농가의 양성화 비용〉

(단위 : 만 원)

건축물 현황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철거비	총소요비용
20	350	122	170	662

이와 같이 건폐율 확대와 이행강제금 경감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한우협회 각 도지회와 시군지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북도지회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도단위 축단협 회의를 개최해 지방정부 조례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관련 이행강제금 경감요구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건폐율이 60%까지 상향조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각 시군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20~25%인 이행강제금을 0%까지 경감하고 가축사육거리제한을 완화(400두 미만은 50m까지, 400두 이상은 70m까지)하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기한 없이 3년마다 연장하는 등 양성화가 어려운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도 이러한 시군지부 및 도지회의 노력과 함께 ▲건폐율 한시적 상향조정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면 조치 마련 ▲건축설계비 및 측량비용 절감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건의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국토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농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황엽 전무는 "무허가 축사 유예기한 3년 중 벌써 4개월여가 지난만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요령을 조속히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협회가 앞장서겠지만 건폐율과 이행강제금의 경우 지자체 소관이므로 여론조성을 위해서 도지회와 시군지부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입장변화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우농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무허가 축사 대책이 시행돼 한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을 영위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삼복더위를 이기는 여름 보양식, 우리한우 최고!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전달

더운 여름철, 한우로 건강을 지키자!

지난 7월 2일 'MBC 기분 좋은날'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철 원기회복을 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우 부위별 요리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KBS2 저녁 생생정보' 프로그램에서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집이나 야외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름철 기력보충 한우 요리법도 공개했다.



전문 셰프의 한우 요리 맞대결

지난 7월 13일부터 27일 매주 월요일 '푸드TV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별(1부:안심, 2부:보섭살, 3부:갈비) 한우의 효능을 소개하고 3인의 전문 셰프들이 한우 요리경연을 펼쳤다. 아울러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우 요리 시식을 통한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전달했다.



우리 한우송! 따라 불러요

지난 7월 26일 아이돌 가수 걸스데이가 'SBS 인기가요' 프로그램에서 한우송을 불러 한우의 효능을 소개했다. 또한, 'SBS 잘먹고 잘사는 법' 프로그램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한우가 자라나 안전한 먹거리임을 알리고 요리연구가의 특별한 한우밥상을 공개했다.



8월 주요 방송프로그램 협찬 계획

- KBS2 2TV–아침(8월 10일 06:30) : 말복 보양식 한우음식 소개
- CBS–FM 배미향의 저녁스케치(8월~10월 18:00) : 사연에 당첨된 청취자에게 한우선물세트 협찬
- 푸드TV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8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 16:00, 7회) : 한우 부위별 요리법 소개

*방송편성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2~24개월에 비타민 A 공급 제한하면 근내지방도 향상

한우자조금, '비타민 조절을 통한 한우 근내지방도 향상'에 관한 연구

거세 한우를 사육할 때 일정기간 동안 비타민 A의 공급을 제한하면 근내지방도, 즉 마블링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한우농가들의 고급육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한국농수산대학 김완영 교수에게 의뢰한 '비타민 A 및 D 조절을 통한 한우의 근내지방도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개월령 거세 한우에게 8개월 동안 비타민 A의 공급을 제한한 결과, 마블링지수가 17% 정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내지방의 분화와 증식이 왕성한 시기는 12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로, 이 기간 동안 비타민 A의 공급을 제한해야 하며 반면 육성기(6~12개월령) 동안에는 비타민 A가 충분히 축적되도록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이해야 효과가 배가된다고 밝혔다. 단, 여기서 '비타민 A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뜻은 원료사료에 함유된 비타민 A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 중 비타민 A를 추가로 넣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2개월령 이전에 비타민 A를 조절할 경우 등지방이 증가하며 비타민 A가 간에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성기에는 양질의 조사료를 무제한 공급하고 비타민 A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타민 A가 간에 충분히 축적되도록 비타민 A 주사는 물론, 철분, 아연, 크롬 주사를 투여하거나 첨가제를 사료에 넣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타민 A의 공급을 제한한 직후부터는 한두 달 간격으로 혈중 비타민 A(레티놀)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비타민 A가 정상적으로 감소하는지 파악하고, 비타민 A 혈중 농도가 90㎍/L(30IU/dl) 이하로 감소하면 시각장애(야맹증, 실명), 증체저하, 근육수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대로 혈중 비타민 A 농도가 90㎍/L(30IU/dl) 이상 유지하면 비타민 A 제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혈중 레티놀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8개월 간 비타민 A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최저 혈중 레티놀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50% 정도 감소했으나, 그 농도는 170㎍/L로 일본 연구에서 조사된 90㎍/L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 선택 시 비타민 A 함량 파악 중요

사료 공급에 있어서도 비타민 A(베타카로틴) 함량 파악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비타민 A 함량이 높은 원료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원료사료 중 비타민 A 함량이 높으면 효과가 적고, 지나치게 낮으면 비타민 A 제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사료의 비타민 A 함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가에서는 육안으로 소의 상태를 관찰, 대략적으로 원료사료 중 비타민 A 함량을 가늠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을 띄는 원료사료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절기간 동안 조사료원으로는 비타민 A 함량이 낮은 짚 등을 사용하며, 짚류가 아닌 조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타민 A 함량을 참조할 것을 제시했다. 참고로 옥수수 사일리지는 비타민 A 함량이 매우 높아 급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타민 A 제한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비타민 A 제한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중기 증세부터는 개체별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그동안 한우농가에서는 효율적인 근내지방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비타민 A 제한 공급으로 고급육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비타민 A의 제한 공급이 근내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타민 A 제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중 비타민 A(레티놀) 농도 측정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조사연구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원산지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임서

8월 31일까지 반드시 보내주세요!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원산지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 별도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한우 생산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가하고자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소송을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야 하지만, 현재 시군별 위임서가 부족해 소송에 애로를 겪고 있다. 9만4,025호 대상 농가 중 8만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24일 현재 5,549건이 접수돼 목표 대비 6.9%만 접수되는데 그쳤다. 성공적인 소송과 한우산업을 위하여 한우농가분들께서는 위임서를 8월31일까지 협회로 제출해 줄것을 당부드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 원산지 단속실적에 따르면 거짓표시, 미표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14년의 경우 미표시 물량이 18.5톤으로 무려 330%가 증가하는 등 원산 지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우 원산지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수입 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아도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대형업소, 명절 등 성수기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민사소송(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하고자 준비에 착수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 정도를 수치화해서, 위반업소에 경제적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원산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 위반업소 소송 위임서 목표 및 제출현황〉

7월 24일 기준

도지회	한우농가수	목표수	제출수	비율
합계	94,025	80,000	5,549	6.9%

소송을 위해 협회는 5월 1일 권준호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송 추진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우농가의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기 위해 현재 시군지부별 위임서를 접수받고 있다. 위임서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11페이지 위임서 양식을 사용해도 된다.

협회는 일부 한우고기 판매업소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농가들이 입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절취선

손해배상청구권 등 위임서

본인은 한우농가로서 수입산 쇠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등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혼동표시를 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 발생 및 향후 발생 분 전부)를 하는 것에 대한 아래의 권한 일체를 위임 합니다.

– 아 래 –

1. 소송행위 2. 변제의 수령 3. 상소의 제기 4.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5.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탈퇴 6. 손해배상금 범위의 산정 7.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15년 월 일

○ 위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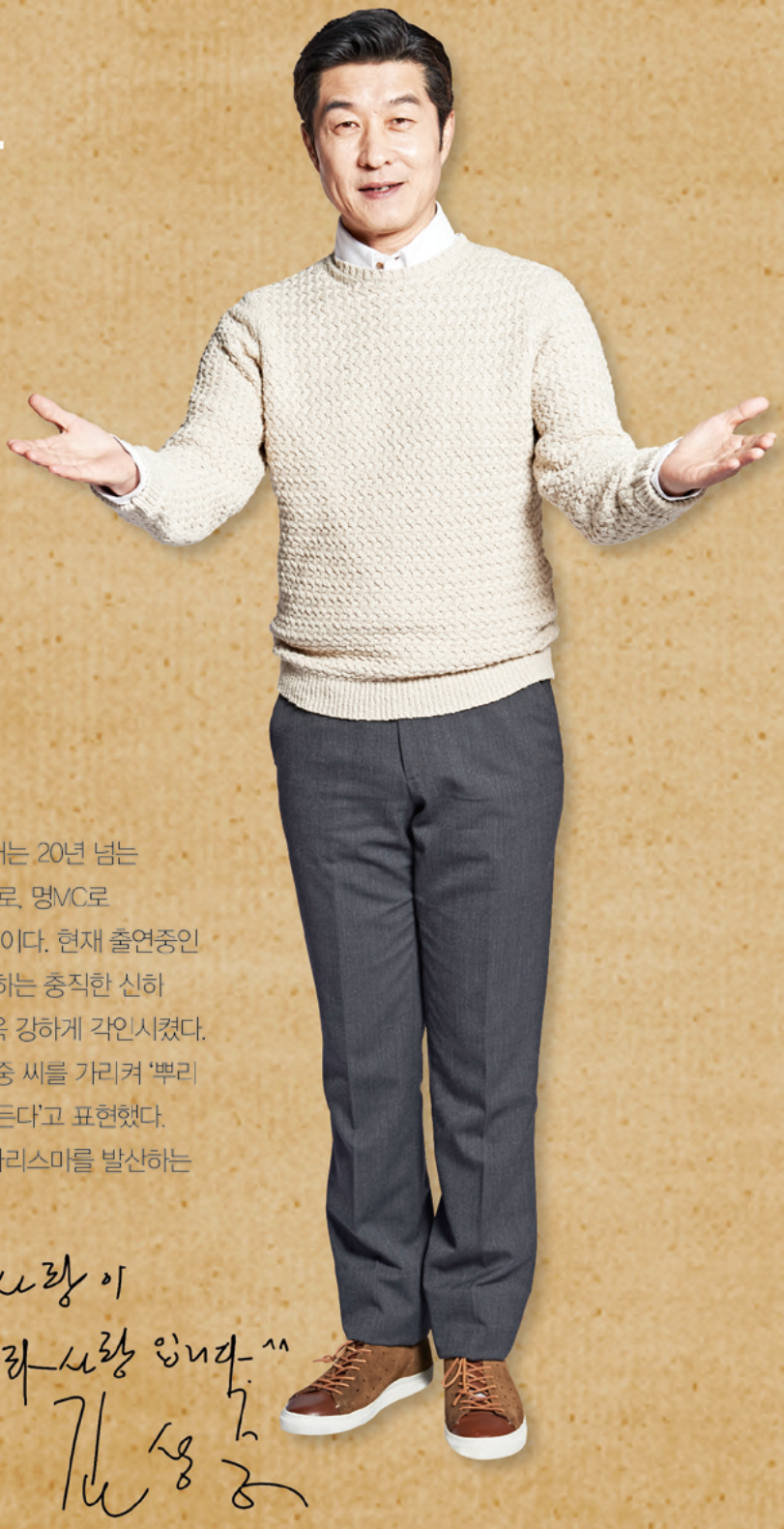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번호	서명

○ 수임인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서초동 제2축산회관 2층)
- **전화번호** : (02)525–1053〈내선109〉

※ 청구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농가는 위임서를 작성해 철취선을 따라 오린 뒤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대되는 배우, 항상 믿음 가는 한우”



한우자조금TVCF 모델
탤런트 김 상 중

올곧음, 부드러운 카리스마, 신뢰의 상징. 이 세 단어는 20년 넘는 세월동안 연극과 TV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명배우로, 명MC로 사랑받고 있는 탤런트 김상중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이다. 현재 출연중인 KBS1 TV 드라마 ‘징비록’에서도 백성, 나라를 생각하는 충직한 신하 류성룡 역을 맡아 국민들에게 우직한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켰다. ‘징비록’에 함께 출연중인 배우 김태우는 이런 김상중 씨를 가리켜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가 올 곧게 서 있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다.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가끔 범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그의 모습은 한우를 꼭 닮아있다.

한우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김상중

항상 즐겨먹는 한우, 그것이 알고 싶다!

배우 김상중에게 한우는 '그것이 알고 싶은 음식'이다. 늘상 즐겨먹는 음식이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한우하면 떠오르는 요리가 '등심구이'지만 한우는 다양한 부위와 그에 따른 요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우의 역사나 등급, 부위 등등 한우에 대해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제가 시사프로그램 MC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점에 있어서 한우는 더 알고 싶어지는 음식입니다."

실제 광고촬영장에서도 김상중 씨는 '한우사랑'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촬영 내내 한우고기를 맛있게 먹은 데다, 심지어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다 먹어버려 스태프들이 놀라기도 했다고. 김상중은 한우홍보모델로서 앞으로 한우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믿음직스러운 한우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오랜 역사와 '이력' 확실한 한우, 신뢰감 높아

한우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신뢰다. 한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통 우리 소이기도 하지만, '쇠고기이력제'라는 시스템이 있어 소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는 것. 김상중 씨는 드라마 '징비록' 출연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오랜 세월의 역사와 믿을만한 유통제도를 가진 한우도 한국인의 대표 먹거리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역사성과 신뢰라는 한우의 가장 큰 특징을 살려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높이고 직거래장터 등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우홍보대사로서 저도 한우를 많이 먹어야겠죠?"



김상중 씨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희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우홍보대사로서의 각오도 잊지 않는다.

"한우농가분들의 피와 땀이 담긴 정성어린 마음이 국민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 관련 행사 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한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한우농가들은 오천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우를 지켜 오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힘내세요! 한우농가 파이팅!"

언제나 기대되는 배우이자 항상 믿고 보는 MC인 김상중 씨가 앞으로 한우사조금관리위원회 홍보모델로서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기대가 된다.



“자식처럼 키우고 정성 들이면 육질은 따라오죠”

전북 부안 천연원농장

일반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한우 사육에 매진한 지 올해로 10년째인 천연원농장의 이영천 대표는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최한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작년 40두 출하 성적은 1++ 등급이 87.5%, 전국평균의(16.3%)의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귀농 후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만들어낸 성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전북 부안 보안면에 자리한 천연원농장을 찾아 한우 사육 노하우를 들어봤다.

송아지 이력, 혈통 등 꼼꼼히 따지고 구입해야

며칠 전 8마리를 출하해 현재 54두의 비육우를 사육하는 이영천 대표는 송아지를 구입할 때 유독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송아지를 고를 때는 경매시작 1시간 전에 가서 경매에 나온 소의 이력, 혈통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육안으로 송아지의 체구가 곧고 체간은 길며 앞발이 큰 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송아지가 있으면 시세보다 20~30만 원 비싸더라도 구입한 뒤, 3개월간은 애지중지 살피며 사육에 들어간다.

“입식 후 보름 동안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까지 방심은 금물이죠. 아침저녁으로 체온을 체크해요. 같은 방 안에 2~3마리가 체온이 높고, 호흡기 질환인 경우

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수의사에게 같은 방에 있는 모든 소에게 처방조치를 같이 해줍니다."

육성기 때 모든 기능 갖춰져야 출하까지 잘 클 수 있어

이영천 대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육성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때문에 육성기 기간을 16개월까지 늘려 잡고 있으며, 그 기간에는 배합사료(TMR)를 1/3, 조사료(알팔파20%, 티모시80%)를 2/3의 비율로 섞어 무제한으로 급여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기 때 배합사료보다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은 조사료가 이 시기에 골격과 소화기관의 발달을 도와 기초체형을 형성하기 때문이란다. 특히 볏짚을 일절 먹이지 않고 건초만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공들여 키우다 보면 육질이 좋은 소를 출하할 수 있다고.

또한 이영천 대표는 육성기 때 모든 기능이 잘 갖춰져야 전기나 후기 비육 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나 후기에 사료를 덜 먹거나 반추위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설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료 급여에도 신중을 기한다.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육성기를 길게 유지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 대표는 반추위 및 골격발달이 이뤄지는 육성기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의 기초체형이 잘 발달하면 이후 사료섭취량이 확연하게 늘어나 증체율이 높아지는 등 고급육 생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그의 설명. 이 때문에 그는 생후 16개월령까지 고단백의 육성기 사료를 소에게 급여한다. 이는 보통 생후 12개월령까지를 육성기로 보고, 이에 맞는 사육법을 따르는 대부분의 농가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우사에 폐타이어를 걸어놔 소들의 놀이용과 등긁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사천정를 높이고 차단막을 설치해 통풍을 원활하게 설계했다.

"육성기에는 활동량이 많아야 근육량이 늘고 운동량도 좋아서 신체지수가 우수해져요. 그러려면 우사 공간도 중요하죠. 우사 한 칸의 법정 공간은 73㎡(약 22평)로, 8마리를 키울 수 있는데 우리 농장은 기존 8두를 6두로 줄여 활동 공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이 대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사 공간을 선점해, 계절별로 알맞게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원활한 통풍과 깨끗하고 시원한 음수 급여, 그리고 차단막 설치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처럼 동물보다는 자식으로 생각하며 소를 정성스레 키운 결과 좋은 품질의 한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암소 비율을 차츰 늘리겠다는 이영천 대표에게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10년 후 그의 한우 농장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새삼 궁금하다.

한우 8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사육전망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9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82만 마리)보다 감소한 269만 마리 전망

공급전망

• 8~9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사육 마릿수 감소로 8~9월 도축은 전년보다 11~20% 감소 전망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4~16% 증가 전망

가격전망

• 8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한우고기 공급 감소와 추석 수요 증가로 8~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기 간(14,800~15,300원)보다 강세인 17,000~19,000원/kg(지육) 전망, 일시적으로 전망치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 있어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단위: 원/지육kg(만원/600kg)

	7월	8월	9월
2015년	17,371(624)	17,000~18,000 (609~645))	18,000~19,000 (645~681)
2014년	14,597(525)	14,849(534)	15,284(549)
평 년	13,503(485)	13,824(497)	14,841(533)



■ 수송아지 가격 급등 ⇒ 비육우 생산원가 부담

■ 한우 소비자 가격 급등시 수요 감소 ⇒ 대체수요(수입육) 증가

■ 국내산 쇠고기 가격 강세로 수입육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7.27)' 인용]

• 7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7.28일까지의 기준임.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구 분			평년 ('10~'14)	2014년		2015년		대비(%)	
				6月(A)	7月(B)	6月(C)	7月(D)	C/A	D/B
도축두수(두)			827,324	60,509	64,596	67,848	61,603	12.1	△4.6
경매두수(두)			379,185	31,943	35,085	36,372	33,482	13.9	△4.6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4,145	14,544	15,743	17,059	12.0	17.3
	거세우		14,569	15,343	15,396	16,933	18,188	10.4	18.1
	비거세우		10,624	11,056	11,267	12,119	12,963	9.6	15.1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4,216	4,414	4,748	5,075	12.6	15.0
	송아지	암	1,511	1,789	1,978	2,464	2,626	37.7	32.8
		수	2,045	2,642	2,760	3,009	3,133	13.9	13.5
불고기(1등급/kg)			32,690	33,860	34,368	34,290	35,379	1.3	2.9
등심(1등급/kg)			61,957	64,220	64,137	65,800	69,540	2.5	8.4

• 한우농가 소득 추정('15.7월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20,911	7,515	4,728	2,787
1+	18,912	6,797		2,069
1	17,802	6,398		1,670
2	15,137	5,440		712
3	12,688	4,560		△168

* 경영비 : 20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728천원/600kg, 통계청)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한우키우기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 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 미경산 한우 맛"

전북 무주 반햇소



한우수육샐러드

천혜의 자연이 숨 쉬고 있는 전북 무주 적상면의 작은 천변에 위치한 반햇소. 이렇게 외진 곳까지 고객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얼마나 맛있는 한우이기에 유명할까 싶었지만 그런 의문은 잠시 뿐이었다. 3대를 이어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식감이 뛰어난 미경산 한우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반햇소. 게다가 한우와 한우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개발까지 매진하고 있는 전병술 대표는 고객들에게 '우리 한우를 맛있고 정직하게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반햇소를 운영하고 있다.

새끼를 낳지 않은 고단백질의 미경산 한우

전병술 대표는 지금의 반햇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2009년 12월부터 무주IC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반햇소 정육식당을 운영했다. 고기보다는 갈비탕, 우거지국밥, 차돌냉면 등 식사메뉴의 인기가 높았는데 손님이 많은 날에는 1,300~1,500그릇까지 판매할 정도여서 식사류가 매출액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그러다 2년 전 지금의 무주군 적상면에 미경산 한우 정육식당으로 새롭게 둥지를 튼 게 지금의 반햇소다.

반햇소는 미경산(출산 경험이 없는 암소) 한우 맛집으로 유명하다. 무주 IC와도 가까워 지리적인 입지도 좋은 편이다. 무엇보다 외조부 때부터 부친, 3대째인 전병술 대표가 직접 한우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질 좋

은 미경산 한우를 제공하고 있다.

반햇소만의 특징이자 차별점은 25개월 미만의 미경산 한우를 엄선해 손님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미경산 한우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럽다. 같은 등급이라도 경산 한우가 1등급이면 미경산 한우는 1+ 등급의 마블링을 가지고 있다고. 미경산 한우의 좋은 부위만 꽃등심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부위는 일반 한우 가격으로 내놓는다.

반햇소의 미경산 한우는 육질도 좋지만 입 안에 넣으면 방울토마토처럼 톡 터지면서 부드럽게 씹히고 녹는 맛도 일품이다. 이 맛 때문일까. 반햇소는 4, 5월이면 극성수기를 맞는다. 전국 각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단체로 미경산 한우를 맛보러 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고기 사시미는 신선하고 맛도 부드럽다. 전병술 대표는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소를 잡는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일주일에 4마리를 잡을 때도 있고, 5월에는 찾는 손님이 많아 하루 1마리 꼴로 도축을 한다고.

고기는 기본, 다양한 메뉴로 고객 입맛 사로잡아

한우를 직접 키우고 도축하는 전병술 대표 입장에서 구이를 제외하고 남은 비선호 부위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축산물가공공장이다. 이달부터 가공식품으로 한우 소시지, 육포, 떡갈비, 사골곰탕, 한우 순대, 한우 수육, 소머리편육을 생산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반햇소의 메뉴는 일반 한우 정육식당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한우를 갈아 넣어 만든 만두부터 떡갈비, 소시지, 고로케, 육포, 화덕피자까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메뉴를 갖추고 있다. 특히 한우 시태를 얇게 썰어 만든 수



저렴히면서도 고기가 넉넉한 부자국밥



반햇소의 전병술 대표

육샐러드는 수육과 야채에 뿌려진 달콤한 특제 소스와 궁합이 잘 맞아 싱금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한우샐러드에 냉면을 곁들이면 더 맛있게 먹을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차돌을 구워 냉면을 싸먹으면 맛있는 차돌냉면과 가격이 저렴한 '부자국밥'과 같은 식사용 메뉴도 반햇소에서 빠지면 섭섭하다. 무주에 갈일이 있다면 꼭 한번은 반햇소에 들러서 미경산 한우와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면 입이 즐거울 것 같다.

전북 무주 반햇소

-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로3
- 전화 | 063-324-9282
- 영업시간 | 오전 11시~오후 9시
- 휴일 | 명절 당일
- 메뉴 | 등심, 채끝, 미경산 한우 등심 · 안심 · 채끝 한우부자국밥 6,000원 한우차돌냉면 9,000원, 한우전골 中(2인분) 30,000원, 한우떡갈비(2개) 13,000원, 한우만두 5,000원, 한우수육샐러드 20,000원, 화덕피자 10,000원(토,일만 운영)





한우농가들이 최근 한우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동안 일간지 및 축산전문지에 소개된 한우관련 이슈를 간추려 게재합니다.

한우 사육두수 2017년 이후 반등



한우사육두수 감소세가 정점을 찍고 상승하는 시기가 지난 2013년 FTA폐업 지원을 받은 한우농가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농경연이 올초 농업전망을 통해 향후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가 2017년을 최저점으로 다시 반등할 것으로, 도축두수는 2019년을 전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한 · 육우 사육두수는 2015년 266만마리를 기록한 후 2016년 263만마리, 2017년 260만마리까지 줄어들었다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농어민신문 2015.07.14 〉

한우농가 9만호도 무너지나

한우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제 9만호 마저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4분기 가축동향 통계에 따르면 한우농가수는 9만4천25호로 전 분기에 비해 3천호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무려 1만5천호가 한우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중 9만호 붕괴도 시간문제다. 10만호가 붕괴 된지 채 1년 만에 다시 9만호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신문 2015.07.15 〉

한우 도매가격 강세… 수입육 확대 우려

한우 도매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한우 소비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수입육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돼 한우농가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직까지는 대형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등심 소비자가격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지만 한우 도매가격 강세가 계속돼 유통업계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경우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 농수축산신문 2015.07.20 〉

면역력 증진, 골다공증 예방…

우주식품으로 인정받은 한우사골국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이며 체력도 쉽게 떨어진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무더위의 계절에 한우로 푹 고아 만든 사골국은 뛰어난 보양식이다. 또 청소년의 성장촉진과 장년층의 골다공증 예방, 여성의 피부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윤지영 교수팀의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건강 기능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은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분화가 증가돼 골격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일보 2015.07.22 〉

한우 정액 선호 '육질'서 '육량'으로

면역력 높이는 영양소 두루 갖춘 '한우'

한우농가들의 정액 선택 기준의 절대적 좌표가 되어왔던 '육질'형 중심의 정액이 최근 '육량'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87만8299스트로에 대한 한우 정액 공급 현황 분석 결과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정액 가운데 육질형은 3개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등심형과 증체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선 이같은 변화와 관련해 1등급이상 출현율이 '14년 기준 65%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며 상향 평준화 된 반면 육량 AB 등급의 경우 전년 말 기준 77.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등의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축산경제 2015.07.24 〉

"한우 · 과일세트는 좀 빼주세요, 네?"

김영란법 어떡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금품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수수금지 대상에 10만 원 이상 한우 · 과일세트나 5만 원 이상 화훼류 등이 포함될 경우 농축산물 판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물 수요가 크게 위축돼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축산업계가 '김영란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명절 선물용 판매가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한우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 때 도축되는 비중이 평월 대비 1.5~1.6배 높다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2015.07.26 〉

농민의 혼 한우, 일제 수탈의 역사

광복 70주년, 일제 치하 한우 수탈을 되새기며

일제강점기 치하의 우리민족은 일제의 극심한 물자 수탈에 시달렸고, 값비싼 노동력과 식량까지 제공했다. 그 속에서 한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1900년대 초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150만 마리의 한우와 600만 마리 분의 소가죽을 빼앗아 가는 한우수탈을 자행했다. 이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시대 우리 한우 모습을 찾아보고 한우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일제 침략과 함께 시작된 한우 수탈

1905년 조선 통감부 설치 이후 한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일제는 1911년 한우가 일본 소에 비해 체격과 성능이 월등하며, 번식률이 높고 발육이 좋다는 내용을 실은 '조선의 한우'란 책자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선과 일본에 배포했다. 이후 일제는 식용과 농경용 모두 우수했던 한우를 자국의 식량 문제와 농업생산량 증대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산, 인천, 원산 등지에 '이출우검역소'를 세운다. 이때 일제가 수탈해간 한우는 1900년부터 1942년까지 150만 마리에 이른다.

군수물자로 쓰인 한우

일제는 한일합방 이듬해 '조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해 한우 가죽가공을 시작했다. 한우의 우피는 지방이 적어 딱딱한 가죽을 만들기에 적합했고, 조직이 치밀해 높게





평가됐다. 한우 가죽은 전쟁에 쓰일 부츠, 공장 및 함선 동력 벨트 등의 군수품 재료로 일본, 중국, 러시아, 만주 등지에 유통됐다. 일본 군수업체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한우 가죽을 수탈해갔으며, 그 양은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한우 600만 마리 분에 달한다.

이처럼 5천 년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고유의 자원, 한우는 비록 일본에 의해 황우, 칡소, 흑소 등 다양했던 품종이 단일화되는 등 우리 민족과 함께 수난의 시기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최고의 소로 인정했고 2006년에는 문체부에서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우리 한우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농가부터 앞장서 더욱 애정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퀴즈 QUIZ

피곤하고 나른하시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B사진에서 A사진과 다른 곳 두 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원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07월호 정답
캠프
구름

※ 애독자퀴즈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내
애독자퀴즈 코너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호 퀴즈 당첨자

김휘곤 울산시 북구 매곡동
오영석 전남 여수시 삼산면
이동열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이지훈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혜자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홍경석 대전시 서구 탄방동

한우자조금 소식지 비매품

2015년 08월호 통권 제118호

발행일 2015년 8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02-2269-5029) **인쇄** 삼진P&C(02-2271-0860)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제할 수 없습니다.

민족산업 한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위 김영란법의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는 온 국민의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법의 시행으로 법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한우는 민족산업으로써 5천년 전통을 이어왔고 명절때에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 한우산업은 FTA 최대 피해품목으로써 국회에서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개정과 무역이득공유제 법을 제정코자 하는 마당에 우리 한우산업의 특징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또 한번의 시련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에 이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한우농가 및 농축산인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5. 8. 10(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은 제외 되어야 한다
- 주 관 | 전국한우협회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